

## 동의·다산부대 장병에게 격려서신

친애하는 동의·다산부대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진이나 테러와 같은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고 염려도 됩니다. 힘든 일이 많겠지만 건강부터 챙기고 동료들과 함께 연말연시도 따뜻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동의·다산부대는 그동안 매일 2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하고, 복지시설과 교량건설 등 300건이 넘는 공사를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현지 주민들의 찬사도 여러분이 쏟은 땀과 정성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우호협력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건활동과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장병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 12월 29일

대통령 노무현